

## 인랜드교협, 팬데믹 이후 첫 성탄 연합 찬양제

갓스월교회, 남가주헬로십교회  
인랜드 ANC 온누리 교회, 마주  
사한교회, 언약교회 등 참여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회장 김성계 목사)는 지난 12월 13일(토) 오후 4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성탄 찬양제를 재개했다. 이번 성탄 찬양제는 오랜만에 열리는 지역 연합 행사로, 인랜드 지역 여러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 예배는 김성계 목사(남가주 헬로십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예배는 ‘천사 찬송하기’와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찬양으로 시작됐으며, 윤창률 목사(인랜드 ANC 온누리 교회)가 기도했다. 이어 강현규 목사(갓스월연합교회)가 ‘왜 크리스마스인가?’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강 목사는 “성탄은 하나님



인랜드 지역 한인 교회들이 성탄 연합 찬양제를 개최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했다. ⓒ 인랜드한인교역자협의회

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 고 이웃을 위하여 기뻐해야 할 날”

이라며, 참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것을 강조했다.

예배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후 이희철 목사(갓스월연합교회 원

로)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2부 콘서트에서는 소프라노 김미

진, 김만덕 장로, 남가주헬로십교회, 예배를 드렸다.

토마스 맹 기자

## “넷플릭스 아동 프로그램 상당수, LGBT 콘텐츠 포함”

미국 기독교 보수단체 ‘컨센트 위민 포 아메리카’(Concerned Women for America, 이하 CW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아동용 프로그램 상당수가 성소수자 관련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총 326개의 아동·청소년 대상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G등급 시리즈의 최소 41%, TV-Y7 등급 시리즈의 41%, TV-Y 등급 시리즈의 21%가 LGBT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대상 시리즈의 33%가 성소수자 주제, 스토리라인 또는 캐릭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난바

이너리 등으로 직접 식별되는 캐릭터, 주요 인물이 아닌 ‘퀴어 코드’ 캐

릭터, 게이 가족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 참여자가 등장했다.

보고서는 넷플릭스 아동 프로그램 속 성소수자 콘텐츠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명시적 범주는 LGBT로 직접 식별되는 캐릭터를 포함하며, 암시적 범주는 주요 인물이 아닌 ‘퀴어 코드’ 캐릭터를 지칭한다. 또 메타 범주는 게이 가족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 참여자 등 간접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분석 결과, G등급 시리즈의 41%가 LGBT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명시적(18%)과 메타(19%)가 거의 균등하게 분포했다. 암시적 범주에 속하는 비율은 4%에 불과했다.

TV-Y7 등급 프로그램에서는 LGBT 콘텐츠가 대부분 노골적인



© Freestocks

형태로 나타났으며, TV-Y 등급 프로그램은 가장 낮은 비율인 21%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다섯 편 중 한 편 이상이 관련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스트로베리 속시크’ 베리 인 더 빅 시티’에서는 트랜스

젠더 캐릭터 ‘배노피’와 난바이너리 캐릭터 ‘레이즌 케인’ 등장했으며, ‘매직 스쿨 버스 라이즈 어게인’에서는 두 엄마와 ‘트랜스 코드’ 카멜레온 캐릭터 ‘리즈’가 포함됐다.

‘베이비시터스 클럽’ 리부트(2020

년 방영)에서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소년 ‘베일리’를 다뤘다. 베일리의 베이비시터 메리 앤은 “베일리는 자신이 여자라는 걸 안다”는 말하고, 친구 돈은 이를 오른손잡이·왼손잡이에 비유하며 “겉모습이 내면과 어울리길 원한다”고 밝혔다. 두 시즌 만에 취소됐지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방영됐다.

페니 낸스(Penny Nance) CWA 대표는 성명에서 “넷플릭스의 반아동, 반가족 의제가 드러났다. 학부모의 이의를 대변하는 외부 독립 위원회가 프로그램 등급을 검토해야 한다”며 “성에 관한 대화는 매우 민감하고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각 가정의 부모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게 신중히 판단해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착  
소액~고액 환율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 그룹 | 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01상

클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 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재단이사장 한기홍 박사 총장 최규남 박사

**2026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6년 1월 31일 까지

너의 7월을 예기호와 함께 맞기로

너의 길을 예호와 함께 맡기자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5-6



### 학위과정 안내

### DEGREE PROGRAMS OVERVIEW

#### 학사 Bachelor of Arts

- 신학 BATH
- 기독교상담학 BACC

#### 석사 Master

- 목회학 MDIV
- 기독교 교육학 MACE
- 선교학 MAICS
- 기독교 상담학 MACC
- 선교학 DMISS
- 교차문화학철학 PhD in ICS
- 교육학철학 PhD in ES
- 상담심리학철학 PhD in CP

#### 박사 Doctoral

- English Track BATH, MDIV, MACE PhD in ICS, DMISS
- Chinese Track BATH, MDIV PhD in ICS, DMISS
- Spanish Track BATH, MDIV
- Indonesian Track BATH, MDIV

#### International Track

- English Track BATH, MDIV, MACE PhD in ICS, DMISS
- Chinese Track BATH, MDIV PhD in ICS, DMISS
- Spanish Track BATH, MDIV
- Indonesian Track BATH, MDIV

### 입학 절차

### ADMISSIONS PROCESS



### 학생 혜택

### STUDENT BENEFITS

- 우편 1~20 할인
- 선교사 및 목회자 장학금
- 연방정부 학자금 (FSA)
- 온라인 학위 취득 가능
- eBook Library Service 제공

### 입학 문의

### ADMISSIONS CONTACT

입학처. (714) 525-0088 (ext 101)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 제11회 신양도서 독후감 공모전....첫 고등학생 참가

세기언 신임 회장 이영선 목사  
부회장 이성자 전도사, 윤우경  
권사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세기언, 회장 임승희 장로)가 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KGBC, 대표 이영선 목사)이 주관한 제11회 신양도서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이 2025년 12월 10일(수),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열렸다.

올해 공모전은 독서와 묵상을 통해 한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돋기 위한 세기언의 지속적 사역으로, 전 세계에서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지며 신양 독서 운동의 확산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올해는 미국 전역은 물론 인도 등 해외 지역에서까지 응모가 이어졌으며, 총 16편이 본심에 올라심사를 거쳐 우수상 3명, 장려상 5



제11회 신양도서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GBC

명, 특별상 1명이 선정됐다. 행사 1부 예배는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의 인도로 드려졌고, 이창남 목사(주님의 손길교회)가 요한삼서를 본문으로 '진리 안에서'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며 신양 독서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했다.

2부 시상식은 윤우경 권사(크리스천헤럴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회장 이성재 전도사가 수상자를 발표했다. 심사위원장 백승철 목사(시인·문학평론가)는 "응모작들이 문학

적 표현력과 신양적 깊이 면에서 독후감을 넘어서 수준을 보여주었다"며, 특히 공모전 11년 만에 첫 고등학생 참가자가 배출된 점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그는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가 신양 독서 운동의 건강한 확장성을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우수상은 이예지(알칸사, 「일화일언」), 어미선(인도, 「왜 믿음인가?」), 심제인(텍사스, 「왜 믿음인가?」) 씨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김선우, 김혜숙, 이카라, 김영준, 이훈구 씨, 특별상은 강지은(하와이) 씨에게 돌아갔다. 상금은 우수상 300 달러, 장려상 및 특별상은 각각 200 달러씩이 수여됐다.

현장을 찾은 수상자들은 "책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글쓰기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정기총회

한편, 시상식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세기언) 제28차 정기총회에서는 회원점명, 사업 및 재정보고, 임원 선거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가 세기언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에는 이성자 전도사(미주크리스천신문 LA 지사장)와 윤우경 권사(크리스천헤럴드 총괄본부장)가 선출됐다. 기타 임원 임명과 내년도 사업 계획은 신임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조셉 리 기자



나침반교회가 민경업 목사 원로 목사 추대 및 이종천 담임목사 취임식을 개최한다.

### 나침반교회 이종천 담임목사 취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모토로 하는 나침반교회가 오는 28일(주일) 오후 4시 민경업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며, 새 출발을 알린다. 또한, 이날 우종복 장로, 강정희 권사의 은퇴식도 같이 거행된다.

민경업 목사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당시 고 오세준 목사를 만나 우정을 쌓았다. 이후 1999년 오 목사가 나침반교회가 설립했으나, 창립예배 후 1년도 되지 못해 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그를 이어 나침반교회를 지난 27년간 섬겼다. 고인이 살아 있을 당시,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를 함께 논의했다는 민 목사는, 어느날 고인이 "나침반교회"라는 이름을 전했을 때, 깜짝 놀

랐다. 그 이유는, 민 목사가 청년시절 근무했던 기독교 출판사가 <종합선교 나침반사>였기 때문.

지난 2013년, 민 목사는 오렌지 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제22대 회장으로 섭겼으며, 국가기도의 날, 다민족연합기도대회 등을 섭기며 교회 연합 사역 및 한인 사회를 위해 힘을 보탰다.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이종천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과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Th.M),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D.Min)에서 수학했으며, 코로나의 뉴송교회(NewSong church)를 섬겼다. 이취임식: 12월 28일(주일) 오후 4시 주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 건강한 목회자 양성 꿈꾸는 CTS 박병동 학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이하 CTS)의 학장 박병동 박사가 차세대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어서 화제다. 지난 6월에 CTS 학장으로 취임한 박병동 목사는 미 육군 군종 목사로 30여 년을 근무한 역전의 용사다. 박병동 학장이 취임하면서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CTS)은 힘차게 도약 중이다.

CTS 신임 학장 박병동 박사는 미 육군 군종 목사로 다양한 부대와 직책을 경험한 경륜을 자랑한다. 박병동 박사는 다양한 직책을

경험하며 목회적 경험과 리더십을 쌓았고, 특히 미국군 군종에서 병원 원목 임상목회수련 과정(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의 전문가다. 박병동 박사는 임상목회 수련(CPE) 모든 과정과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고 후배 목회들의 CPE 과정을 지도했다. 미군 사정을 잘 아는 피터 강 목사는 박 박사가 미군종에서도 인품과 성실함으로 존경받던 지도자라고 전한다.

박병동 목사는 1983년 4월에 미 육군 군종 목사로 입대했다. 미 육군 군종 목사로 복무하는 한 인들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당시 박목사는 켄터키주 루이빌 순복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 남침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M.Div.) 과정을 마치고 같은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중이었다. 목회와 학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입대하여 30년 가까운 세월을 군에서 보냈다.

그는 미 육군에서 군종 목사로

섬긴 세월을 감사와 보람으로 정리한다. 군종 목사 시절을 돌아보면 특별한 감사 제목이 떠오른다. 첫째로 미군에서 많은 젊은이를 만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둘째로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 출신의 목사가 미군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셋째, 미국 육군의 간부들을 섬기며 현재의 지도자와 미래의 지도자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가슴 벅찬 일이었다.

박 목사는 군대에서 훌륭한 신앙 인들을 가까이서 교제한 것은 감사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특히 사성(四星)장군이 되어서도 매주 주보를 나눠주며 안내위원으로

로 섬긴 장군을 기억하고, 전투 현장에서 무를 끓고 기도하며 기적을 체험했던 기도하는 장군을 기억한다. 신학교 학장으로 취임한 박 박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양성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는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며 분명한 비전을 품는다. 우선 박 학장은 CTS의 인준 과정(연방정부 신학교 인가(ABHE)와 북미 신학교 연합회(ATS) 인준)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둘째로 영적 리더십을 갖춘 사역자를 양성하기를 바라고, 셋째로 훈련(육체훈련과 영적 훈련)이 잘된 사역자를 배출하는 신학교로 세워가기를 기도한다.

한편, CTS는 혼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신학교를 지향한다. CTS는 모든 재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한다. 이런 학교 환경은 혼신된 이사진들과 교단 교회의 사랑과 협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 교단 소속 신학교인 CTS는 1976년에 개교하여 1999년에 가주 정부로부터 학사부터 박사학위까지를 수여할 수 있는 정규신학대학원으로 인가를 받았고, 2018년에는 I-20 발급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학교 입학 및 후원에 관한 문의는 714) 715 5999나 714) 722-4805로 연락하면 된다. 강태광 목사 (World Share USA)

Serge PRESENTS  
GCL을 개발한 Serge팀이 함께 합니다.

복음 중심의 삶 콘퍼런스

GCL  
GOSPEL CENTERED LIFE  
conference

ANC 창립 30 주년 기념

1996 ★ ★ ★ 2026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시나요?

Jan. 24, 2026 / ANC 온누리교회 본당

8:00am-4:30pm / 점심 제공

복음 중심의 삶 콘퍼런스 (Gospel-Centered Life Conference)는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는지를 나눕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에 관심이 있다면, 콘퍼런스에 등록하세요!

문의: ANC 온누리교회 (818-834-7000) / www.anconnuri.com

ANC

온누리교회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50차 정기총회 및 사랑나눔

13일 임마누엘선교교회서  
제51대 회장 한경환 장로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The Han-I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가 지난 12월 13일(토) 오전 11시 30분, 로스앤젤레스 임마누엘선교교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 및 사랑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사랑나눔 전달식, 3부 총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이찬용 장로의 사회로 시작됐다. 증경회장 정도영 장로의 기도와 성경봉독 후 충현선교교회 원로 민종기 목사가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현금기도는 회계 최덕원 장로가 맡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제50차 정기총회 및 사랑나눔 전달식 ©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2부 사랑나눔 전달식에서는 회장 역자 등 총 30곳에 사랑나눔 후원 우크라이나 사역, 재소자 및 마야 간 이득원 장로의 인사말과 함께 국내 이 전달됐다. 극서부신학대학, 고신 생 사역 등 다양한 선교 및 구제 사 외 신학교, 선교단체, 교회, 개인 사 신학대학교, 멕시코와 네팔 선교지, 역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3부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역 및 회계·감사 보고가 진행됐으며, 제51대 회장 선출도 이루어졌다. 공천보고 후 제51대 회장으로 한경환 장로가 당선됐으며, 한 장로는 당선 인사를 통해 협의회의 연합과 섬김 사역의 지속을 다짐했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는 지난 1년간 기도와 물질로 협의회를 후원한 증경회장단과 고문, 자문위원, 임원 및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으며, 장소를 제공한 임마누엘선교교회 이진경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식사 기도 후 전체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으며, 식사는 탈북동포들이 준비했고 음료와 과일은 김영구 목사가 협찬했다.

김민선 기자

## 미주합동 서부노회 “사모 없이 목회 없다”

미주합동(총회장 하재식 목사, 사랑한인교회 담임) 산하 서부노회가 주최한 노회 사모님 사은회 ‘사모 없이 목회 없다’ 행사가 15일 용수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앤디옥장로교회 원로목사인 김상규 목사의 축복기도로 시작되었으며, 한 해 동안 목회 현장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온 사모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특별히 문광현 목사를 비롯해 산타모니카한인교회(김경렬 목사) 권사회, 복음제일교회(정계동 목사) 등에서 사모님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푸짐한 선

물이 전달됐다. 서부노회 측에 서 준비한 만찬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헌신해 온 사모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서부노회는 2026년에도 목회자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 사역을 지속하며 사모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계속해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노회 미래목회위원회(위원장 케니 김 목사)는 차세대와 미래 목회를 위한 방향도 함께 소개했다. 위원회는 1세 교회를 위한 영어 설교 프로그램을 통해, EM 사역자에게

만 영어 사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주는 전 성도가 함께 모여 영어로 설교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지도하고 있다

고 전했다. 또한 ECA에서 안수를 받았으나 현재 노회에 등록하지 못한 목회자들과, 현재 독립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노회 가입을 돋기 위한 편복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ECA 출신 목회자들의 문의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서부노회 미래 목회준비위원회 213-522-9799 (케니 김 목사)



## ‘꿈이 있는 자유’ 28일 성탄 콘서트

성탄절을 앞두고 아이엠 교회(I AM Church, 정종원 목사)는 오는 주일인 12월 21일 오후 2시 교회 본당(412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감사 콘서트를 연다. 주소: 412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 OC장로협의회 이취임식 27일

참된 장로상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오렌지카운티 장로협의회(The Elders Association of Orange County)는 오는 27일(토) 오후 4시 플리튼의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제12대 회장 김영수 장로와 이사장 황지운 장로 이취임 예배를 드린다. 조셉 리 기자

문의: 사무총장 정석봉 장로 (714-234-1856)

일시: 12월 27일(토) 오후 4시

주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 효사랑 시니어대학 제3회 송년음악축제 성료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산하 효사랑 시니어대학이 2025년 학사 일정을 마무리하며 ‘제3회 송년음악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시니어 학생들이 1년간 갈고닦은 배움의 결실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선교회 후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찬 목사는 “시니어의 생애는 수학의 시기”라며 “재능을 커뮤니티에 기부함으로써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밝혔다.

조성우 학장 역시 “노년은 결코 멈춤의 계절이 아니다. 오늘 무대 위 연주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생애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이라



효사랑 시니어대학이 ‘제3회 송년음악축제’를 개최했다.

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과 자리를 가득 메운 관객들에게 조 학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박수는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우리 공

동체가 걸어온 길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다.

서정길 목사와 김지혜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

과 조이스 안 부에나파 시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공연은 음악교실과 하모니카 팀의 따뜻한 캐롤 연주를 시작으로, 라인댄스 팀의 경쾌한 율동과 난타 팀의 힘찬 퍼포먼스가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이어 에어로폰 연주, 중창단의 화음, 유용우 목사 부부의 색소폰 특별 연주가 감동을 선사했다. 행사의 피날레는 합창단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등의 열창으로 장식됐다. 효사랑선교회는 “2026년에도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며 축제를 마무리했다. 김민선 기자

김민선 기자

## 샬롬한의원

Diamond Bar Shalom Acupuncture Clinic은 예수님이 마음으로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909) 860-4260

cell: (213) 518-4635 / shalomacu.drkim@gmail.com

22640 Golden Springs Dr, STE B, Diamond Bar, CA 91765

✓ 각종 보험 완비  
Comprehensive Insurance Coverage

✓ 다양한 임상경험  
A variety of Clinical Experience

✓ 체질 맞춤 보약, 알약  
Constitution-Customized Herbal Medicine

✓ 체열 사진촬영  
Thermal Imaging Photography

SHALOM  
ACUPUNCTURE

1st Time  
Discount

50%  
with Google Reviews



DR. JUNE KIM, L.Ac.

# 신윤석 목사, 모든 이야기는 '응답하라 1992'로 귀결된다

많은 크리스천에게 신앙 여정에 잊지 못할 순간이 있다. 마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여러분의 신앙 추억은 어느 해인가?"

좋은나무교회 신윤석 담임목사에게는 1992년이 바로 그해이다. 지난 11월, 신 목사는 TV 기독일보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에 출연해 진행자 곽윤영 집사와 이성일 목사와 함께 자신의 신앙 여정 중 잊히지 않는 '응답하라 1992'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시기를 기점으로 신 목사의 하나님과의 '소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요철야기도회에서 들은 사도행전 2장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는 구절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 '통용'이 그에겐 '하나님과의 소통'의 의미로 다가왔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원치 않던 기도를 시작했을 때, 마음속 찌꺼기가 불에 타 사라지듯 주님과의 소통 장애물이 제거되는 경험을 했다.

다음은 신윤석 목사가 진행자들과 나눈 하나님과의 소통 이야기.

## 신앙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아버지는 교육자셨습니다. 이미 1992년에 별세하셨기 때문에 벌써 33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청렴하고 정직하며, 세상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머니는 저희 가정의 초대 신앙이십니다.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도 전도 되셨고,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온 가족은 물론 사촌, 육촌까지 복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무속 신앙에 익숙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과 부딪히며 가족을 감화시키는 과정을 어릴 적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머니는 저의 믿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 목회의 길을 가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모든 이야기는 '응답하라 1992'로 귀결됩니다. 1992년 1월 31일, 금요일 철야 기도 시간에 중생 체



좋은나무교회 신윤석 목사는 성대 결절과 고관절 통증을 겪으며 목회자의 전인적 관리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이는 박사논문으로 이어졌다.

## 중학교 1학년 때 드린 서원기도로 아버지 수명 11년 연장 트레이일 위의 목회자: 영·혼·육 균형이 가져온 새로운 충만 목회자 자기 관리, 걷는 만큼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부 수련회에 참여해 예배소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 제 안에는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금요 철야기도 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날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통용'이 제게는 '소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제 기도는 제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간구에 불과했습니다.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향해 축복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안에 있던,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스kip 해 버렸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제 마음의 통로를 꽉 막고 있는 어둠을 깜한 동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그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 - 그때 목회자로 헌신하셨나요?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하나님

께 드린 서원이 있습니다. 중학교 1

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간경

화와 당뇨 합병증으로 위독하셨고,

셋방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던 이별

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치오니 제 아버

지를 살려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기도

를 들으신 아버지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는 아버지의 생명을 11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가 바로 제가 대학을 졸업한 해

였습니다.

- 그 11년 동안, 목회자의 길에 대한 고민은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신, 신학교에가 보니까 정말 거룩한 신앙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자신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 그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목회를 그만하라는 뜻인가 하고 그냥 내려 놓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백을 제가 왜 안했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목회 사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인생의 결정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려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간 동안, '목회자의 자기 관리'라고 하는 목회학 박사 논문도 쓸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난을 겪으며, 전인적 신앙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이것에 대해 공부하며, 책을 읽고 있던 중, 교수님의 격려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필렌의 새벽별 교회에서 3년간 주일 설교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설 문제로, 2025년 6월 말로 주일 설교자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저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 예배당, 새벽 기도, 늘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 혼, 육 전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레이일을 걸으면서, 주님과 교재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제목들에,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시간 두 시간 걸다 왔는데, 제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충만하고 제 입술, 제 영혼에 찬양이 넘쳐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이 정리가 되는 경험을 했다. 그 경험은 '목회자 자기 관리'라는 박사

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저에게 역사하신 거 있다면 전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목회를 하여라라는 마음을 주신 거 같습니다.

- 그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목회를 그만하라는 뜻인가 하고 그냥 내려 놓았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백을 제가 왜 안했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목회 사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인생의 결정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려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간 동안, '목회자의 자기 관리'라고 하는 목회학 박사 논문도 쓸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 고난을 겪으며, 전인적 신앙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이것에 대해 공부하며, 책을 읽고 있던 중, 교수님의 격려로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필렌의 새벽별 교회에서 3년간 주일 설교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설 문제로, 2025년 6월 말로 주일 설교자의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저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 예배당, 새벽 기도, 늘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 혼, 육 전인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트레이일을 걸으면서, 주님과 교재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제목들에,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시간 두 시간 걸다 왔는데, 제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충만하고 제 입술, 제 영혼에 찬양이 넘쳐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이 정리가 되는 경험을 했다. 그 경험은 '목회자 자기 관리'라는 박사

##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맹창현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엔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 글로벌감리교회 한미연회 서부지방

GMC는 동성애와 비성경 가치를 말씀의 순종으로 변혁시키기 위해 전세계 약 7,000개 교회가 결단하여 2024년에 창립된 감리교단입니다.

## LA 베이직 교회

이선기 담임목사

Tel : 213-255-0521

1304 Cochran Ave, Los Angeles, CA 90019

## 더힐링 Church

김정우 담임목사

Tel : 949-568-1916

23822 Avenida Sevilla, Laguna Woods, CA 92637

## 라스베가스 교회

최영완 담임목사

Tel : 702-582-2447

2100 Snow Trail Las Vegas, NV 89134

## 로뎀 교회

이성현 담임목사

Tel : 808-500-0077

290 Sand Island Access Rd, Honolulu, HI 96818

## 미라클 LA 교회

신병옥 담임목사

Tel : 213-298-3399

3460 Wilshire Blvd. 7 Floor, Los Angeles, CA 90010

## 새빛 사랑 교회

박유 담임목사

Tel : 469-855-7857

4652 Eagle Rock Blvd, Los Angeles, CA 90041

## 생수의 강 교회

김영웅 담임목사

Tel : 213-275-1992

463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 주님의 축복 교회

이태범 담임목사

Tel : 714-902-9292

21209 Claretta Ave, Hawaiian Gardens, CA 90716

## 주 반석 교회

강현중 담임목사

Tel : 213-235-7659

26231 Silver Spur Rd, Rancho Palos Verdes, CA 90275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Merry Christmas

# 올 한 해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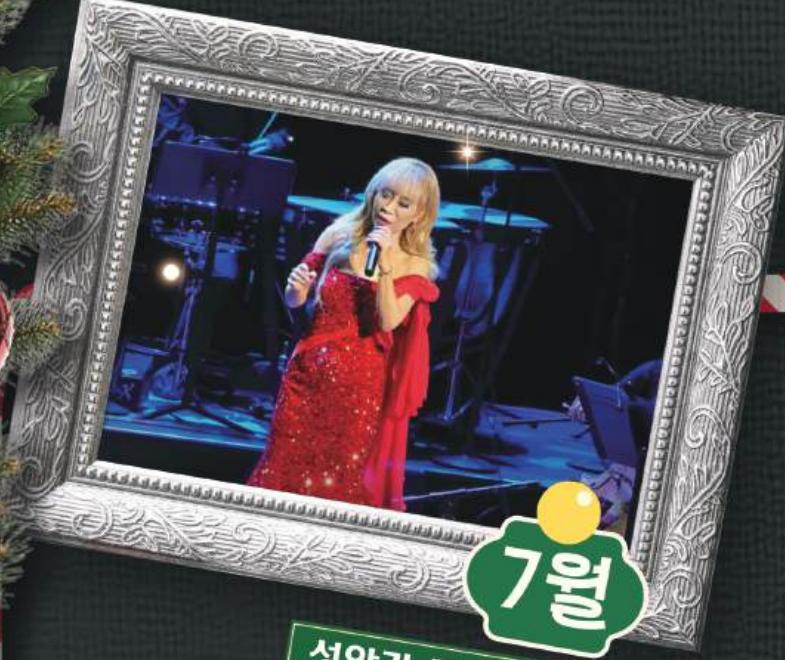
1월

떡국 나눔 행사

\$18,000 장학행사에 기부



4월

태진아 트로트 공연  
센터메디컬클리닉 플러튼 2주년

7월

성악가 조수미 공연



5월

무료 1일 꽃놀이 관광



8월

무성영화 역사 영화제



11월

제4회 시니어 골프대회

## 2026년에도 변함없는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센터메디컬그룹 이야기를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혐오표현 규제? 사상 검열 · 언론 통제 악용 소지”

동반연·진평연 등,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안 규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등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에 대해 “반민주적 사상 검열과 언론 통제를 위한 악법”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미 2018년 김부겸 의원이 유사한 혐오표현 규제법안을 발의했다가 거센 사회적 논란 끝에 철회한 전례가 있음에도 사실상 동일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정일영, 박지원, 강선우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단체들은 법률명과 달리 법안의 실제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제2조가 혐오표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특성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행해지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차별·배제·모욕·위협은 물론 ‘정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적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표현의 객관적 의미와 무관하게 누군가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만 해도 혐오표현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

법이나 평등법안의 ‘혐오표현 금지’ 조항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오히려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별 사유가 출신 국가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종교, 정치적

의견, 낙태, 전과 여부 등까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 결과 동성애나 성전환,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 사이비 종교 비판이나 낙태 반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비판 등도 혐오표현으로 금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표현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자 필수 요소라며,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유통과 비판적 표현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는 반민주적 악법”이며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사상 검열과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이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 혐오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성직자의 설교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종교적 교리와 신념에 근거한 동성애나 낙태에 대한 비판적 설교조차 혐오표현으로 규제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혐오표현 피해자뿐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사실상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표현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라 필수 요소라며,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유통과 비판적 표현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는 반민주적 악법”이며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하는 사상 검열과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선과도 같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이 악법의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법안이 강행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의 존속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계각층의 국민과 단체가 연대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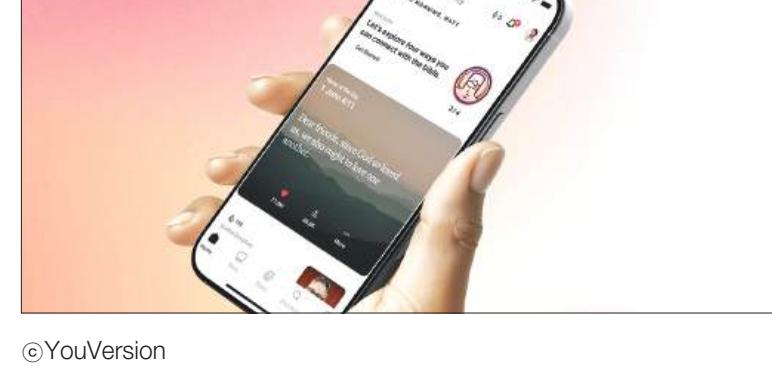
김진영 기자

## 유버전 ‘2025 최다 검색 성구’는 이사야서 41장 10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성경 앱 유버전(YouVersion)은 최근 기독교인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한 구절로 이사야 41장 10절을 꼽았다. 이 성구는 지난 6년간 네 번이나 1위를 차지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 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불들리라”(이사야 41:10)

유버전 창립자 바비 그룬왈드(Bobby Gruenewald) 대표는 “이 구절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라는 가장 깊은 필요를 다루기 때문”이라며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에 이끌린다. 그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한다”고 말했다.



©YouVersion

2025년은 유버전 역사상 성경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해였다. ‘글로벌 성경의 달’인 11월 첫째 주일 하루에만 1,900만 명 이상이 이 앱을 이용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30일 성경 챌린지에는 260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매일 성경 사용이 2024년 대비 19% 증가했다. 새해 첫날에는 3백만 명 이상이 1년 성경 계획에 가입해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부활주일에는 1,900만 명 이상이 이 앱을 사용해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11월 2일 주일에는 앱 역사상 가장 많은 성경 참여가 기록됐고, 8월 말부터 11월까지 매주일마다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그룬왈드는 “우리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 사람들은 진실되고 진짜인 것을 갈망한다. 성경은 살아 있고, 활동적이며, 우리의 일상과 깊이 관련돼 있다”며 “이 숫자들은 수백만 명의 변화된 삶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희망과 방향, 목적을 찾는 사람들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2025년 성경 참여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1일 성경 사용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27%, 북아프리카·중동·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33% 늘었다. 이미 성경 앱 사용이 활발한 북미 지역에서도 14%의 성장을 기록했다.

연중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사랑, 불안, 평화였으며,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질문과 걱정을 반영했다. 이사야 41장 10절 외에도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가 세계적으로 많이 검색된 구절로 꼽혔다.

평균적으로 매초마다 40일 성경 계획이 완료됐고, 112개의 성경구

절이 강조·북마크·기록되며 단순한 읽기를 넘어 적극적인 참여에 이뤄졌다.

그룬왈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동력은 2026년과 그 이후를 향한 담대한 믿음을 준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꾸준히 참여할 때, 그것은 개인의 삶을 넘어선 변화를 가져온다”며 “가족과 지역사회에까지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 우리는 ‘글로벌 성경의 달’ 동안 형성된 습관이 계속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삶을 바꾸는 힘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버전은 라이프닷처치(Life Church)가 만든 무료 성경 앱으로,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을 찾도록 격려하고 도전한다. 전 세계 10억 대 이상의 기기애에 설치됐으며, 2,3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한다. 오프라인 사용이 최적화된 기기와 데이터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OneHope와 협력해 개발한 상호작용 애니메이션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경과 교감하도록 돋고 있다. 강혜진 기자



## ADU 전문

리모델링!

###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5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늘 [Koreatown] 이 먼저였습니다



늘 [우리]가 먼저였습니다.

엘에이, 뉴욕, 시애틀, 하와이, 애틀랜타,

우리가 있는 곳이면

늘 한인사회를 먼저 생각했던 당신,

이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SMG

서울메디칼그룹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Christmas*  
성탄을 축하합니다

## CMF 선교원

결혼교실, 결혼준비교실, 아내교실,  
사모교실, 선교사부부축제  
MK Celebration, 사랑의 찬양제  
CMFN  
www.GodFamily.com

13459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493-0191



김철민 장로

## LA 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1부 8:00AM  
주일예배 2부 10:30AM  
주일학교 10:30 AM  
청소년 예배 10:30 AM  
English Service 9:00 PM  
금요예배 7:30PM  
새벽예배(월~토) 5:30AM  
[www.thejoylife.org](http://www.thejoylife.org)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351-9975 (Fax) 9975 (Fax) e-mail: [joylife9191@gmail.com](mailto:joylife9191@gmail.com)



이희문 담임목사

## LA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온라인 수요저녁예배 (수) 오후 8시  
새벽예배 월~온라인 오전 6:00  
화~토~현장 영상예배 (오전 6:00)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 가나교회

주일예배 오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5시:30

1201 W. 255st St, Harbor City, CA 90710  
310-986-9797 [ganachurch@hotmail.com](mailto:ganachurch@hotmail.com)



안병권 담임목사

##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10  
주일예배 3부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 (토)오전 6:30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http://www.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 남가주기쁨의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초중고등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전 11:00  
Anointing 친양워십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이황영 담임목사

## 멜리데교회

주일 1부 오전 8:30 (본당)  
2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본당)  
토 오전 6:30  
중고등부 오전 10:40 (1층 중고등부실)  
유초등부 오전 11:00 (2층 유초등부실)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820-0003



고귀남 담임목사

## 씨미밸리침례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2부 오전 11:15  
주일영어부예배 오전 9:45  
수요제자훈련 오전 10: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45

4868 Cochran St, Simi Valley, CA 93063  
T. (805) 582-1102



반재근 담임목사

## 방주교회

주일예배 오후 12:00  
주일학교 오후 12:00  
수요예배 오후 7:00

3735 Hughes Ave, Los Angeles, CA 90034  
T. (310) 836-8342, (213) 663-3301



김영규 담임목사

## 구세군 OC 한인교회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장소 : 94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주일예배  
2부 : 오후 12:30  
장소 : 1515 W. North St,  
Anaheim, CA 92801



김성수 담임목사

## 주님세운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교회학교  
영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325-4020



신용환 담임목사

## 밸리주하나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저녁예배 오후 7:30  
Youth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5: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8131 Tampa Ave, Reseda, CA 91335  
T. (818) 794-0691



이태훈 담임목사

## 소망장로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00

[www.somangusa.com](http://www.somangusa.com)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505 LA CA 90057  
Tel. (213)487-2481



성요셉 담임목사

## 拉斯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증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오전 6:00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_driho@hotmail.com](mailto:E_driho@hotmail.com)



조웅철 담임목사

##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269 Walnut Dr, Oxnard, CA 93036  
T. (805) 485-0100



남재현 담임목사

##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이준준 담임목사

## 한마음제자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0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1:30  
금요 찬양기도의 밤 저녁 8: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500 Shatto Pl. #410 LA, CA 90020  
T. (213) 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금)  
오후 3:00(토)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 606-2345, (424) 445-8070



김성식 담임목사

## 토랜스조은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http://www.torrancegcc.org)



가명훈 담임목사

## 토랜스선한목자교회

한어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영어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한어주일/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 (310)326-2001/310-989-4381



이승혁 담임목사

## 밸리생명의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영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토 오전 6:00

18531 Gresham St, Northridge, CA 91324  
변은광 담임목사  
T. (213) 434-5868 [johnserves@yahoo.com](mailto:johnserves@yahoo.com)



변은광 담임목사

##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23670 Wiley Canyon Rd, Valencia, CA 91355  
T. (661) 964-8205



김정우 담임목사

## LA 건강한교회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2525 W. 8th St, #205, Los Angeles, CA 90005  
최영봉 담임목사  
T. (213) 271-5034 / [Youngbchoe@gmail.com](mailto:Youngbchoe@gmail.com)



최영봉 담임목사

## 아름다운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목 오전 6:00  
토 오전 7:00  
금요찬양집회 오후 7:30

511 S. Loara St., Anaheim, CA 92802  
T. (714) 772-3100



이봉하 담임목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Merry Christmas

## 축성탄

## 평강교회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목요 TEE 양육 Zoom 오후 7:3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pyeongkangch@gmail.com  
<http://pyeongkang.com>  
T.(213)393-9136

## 샘 중앙 커뮤니티교회

## 예배시간 안내

한어예배 : 주일 11:00 am  
영어예배 : 주일 12:30 pm  
Hispanic : 2 pm  
수요예배 : 7:30 pm  
새벽기도회 : 화 ~ 토 5:30 am



샘 신 담임목사

## 찬양인도자 구함

samshin0127@gmail.com

## 주소 및 전화

125 South Vermont Avenue, Los Angeles, CA 90004  
T.(213)215-6029

## 갓스윌연합교회

God's will Alliance Church

##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 예배 오전 8:00  
주일2부 예배 오전 10:45  
English 통역 주일 오전 11:00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EM 주일 오후 1:30  
수요중보기도 오전 10:00  
토요새벽기도회 토 오전 6:00  
큐티모임  
기타교실 주일 오후 1:00



강현규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904 East D St. Ontario, CA 91764  
T. (909)983-0994, Cell: 626-710-7173, Email: gfc0691@gmail.com

능히 할 수 있는 믿음 공동체 (막 9:23)

주향교회 JOOHYANG  
PRESBYTERIAN CHURCH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김 신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F. (213)383-5085  
info@joohyang.org



##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총회장: 박영준 목사  
부총회장: 안선신 목사  
총무: 서진건 목사  
부총무: 김보겸 목사, 고무디 목사  
서기: 조은혜 목사  
부서기: 윤구영 목사  
회록서기: 서은남 목사  
회록부서기: 박춘혜 목사  
회계: 안정희 목사  
부회계: 이종숙 목사  
감사: 서사라 목사, 진건호 목사  
사무총장: 엘리야김 목사  
LA노회장: 엘리야김  
부노회장: 진건호 목사  
남부노회 노회장: 김인철 목사  
부노회장: 강성수 목사



총회장: 박영준 목사

교단 가입 상담 213-272-6031

## 공적신학 실천센터

Center for Public Theology and Practice

## “공적신학 실천 센터 비전”

복음을 확신하며 복음의 실천을 통해 공적교회의 공적책임에 다가선다!



류준영 목사

[www.pubtheo.org](http://www.pubtheo.org)  
T. (310)738-0485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Merry Christmas

## 축성탄



## 다우니제일교회

##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아동부 주일예배 오전 11:00  
Youth, EM 주일 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el) 562-861-1004 downeyfirstchurch@gmail.com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 동부사랑의교회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4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한어대학청년부(드림청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금 저녁 7: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20



우영화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ESCC), eastsarangweb@gmail.com  
www.eastsarang.org



## 연합선교교회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0:45  
EM Youth & Preschool Sunday  
Worship 주일 오전 10:45  
수요, 금요 저녁 기도회 수, 금 오후 8:00  
토요새벽기도회 토 오전 6:00  
목장모임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



담임 김종호 목사

## 주소 및 전화

11135 & 11145 Morrison St, North Hollywood, CA 91601  
T. (213) 281-1196 pastorjonghokim@gmail.com



## 산타모니카 한인 교회

##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산타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Dallas Baptist University  
Talbot Seminary  
Azusa Pacific University  
BA, MA, MDiv,  
DMin(candidate)

## 주소 및 전화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kyung.kim@biola.edu  
www.smkc.us



## 오레곤 벤엘장로교회

##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8:1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청년부예배 주일 오후 2:00  
수요온라인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이돈하 담임목사

## 주소 및 전화

18391 SW Blanton St. Beaverton, OR 97078  
T. (503) 649-3990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 얼바인온누리교회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대청Promise 오후 2:00  
수요성령집회 오후 7:30  
목요여성예배 오전 10:30



박신웅 담당목사

## 주소 및 전화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찰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F. (310) 530-8400/cornerstonetv.com

가명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GRC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KMC정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장유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예배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www.okcr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로/아이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성년부 오전 9:30, 11:30  
한국대학생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별다른국제단: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림학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천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복예배 오전 9:30(목)  
제자서성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박신웅 담당목사

주일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C대학청년부 오후 2:30

열반온누리교회

다임제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00(토)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례신도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F. (714) 446-6207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일) 새벽 6:00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최원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유아/유치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영어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경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5:20(월-금)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영어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여가는 교회

17175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F. (626) 964-555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되어 사명을 위임여시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F. (909) 622-1480/inlandchurch.org

국

## “男을 男이라 부른” 英 기독교인 간호사, 징계 심리 돌연 취소돼



▲제니퍼 멜. ⓒ기독교법률센터 제공

영국 기독교인 간호사 제니퍼 멜(Jennifer Melle)의 징계 심리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막판에 취소된 가운데, 아직 새로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멜레는 지난 4월 트랜스젠더 환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됐다. 해당 환자는 고보안 남성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멜은 치료 문제를 의사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물학적 성별을 언급하며 ‘미스터(Mr)’라고 불렀고, 이에 환자는 그녀를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멜은 언론에 정직 처분 사실을 알린 뒤, ‘데이터 유출’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간호및조산위원회(NWV)는 그녀가 환자를 잘못된 성별로 호칭한 것이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멜은 자신이 내부고발자로 처벌받고 있다고 맞섰다.

멜은 보수당 대표 케미 바데녹(Kemi Badenoch)과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J.K. 롤링(J.K. Rowling)으로부터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받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 마약과의 전쟁은 성공했는가?

크리스천포스트는 토니 퍼킨스의 기고글 ‘마약과의 전쟁은 성공했는가? 진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Has the war on drugs succeeded? The real problem is far worse)를 11일 게재했다.

토니 퍼킨스는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회장이며, 워싱턴 스탠드(The Washington Stand)의 총괄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모두 사살하라”는 명령은 없었다.” 프랭크 ‘미지’ 브래들리 해군 대장은 이번 주,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벌어진 이른바 마야 테러 조직 선박에 대한 군사 공격과 관련해 의회에 비공개 보고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공격으로 11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건이 약 20차례에 걸쳐 총 8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다른 공격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1차 공격에서 살아남은 두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2차 사격’이었다. 논란의 중심에는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모두 사살하라(Kill them all)”는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전을 옹호하며 “우리가 격침시키는 배 한 척마다 2만5천 명의 미국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마약 선박을 공습하는 방식은 분명 새로운 시도이지만, 마약 테러 조직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새 일은 아니다. 현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1971년 6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마약 남용을 ‘공공의 적 제1호’로 규정하며 전국적 대응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2년 뒤 그는 미국 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단속국(DEA)을 창설했다. 1980년대에는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 아래서 이 전쟁은 더욱 격화됐다.

그렇다면 마약과의 전쟁은 과연 성공했는가? 마약 선박의 화물과 선원을 제거하는 것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증거는 여전히 무언가가 빠져 있음을 말해준다.

사업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법칙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마

약과의 전쟁이 50년 넘게 이어졌지만,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줄어들기는커녕 폭증했다. 1971년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과다복용 사망자는 3.3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24.3명으로 증가해 7배 이상 늘어났다.

역사와 수요·공급의 냉정한 법칙은 공급만 줄여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거래를 더 수익성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범죄의 기업’ 이론에 따르면, 조직 범죄 집단은 불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익성이 있는 수요가 있을 때만 등장한다. 다시 말해, 공급은 수요를 따른다. 다크웹 마약 시장을 분석한 한 연구 역시 판매자들이 단순히 생산국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많은 국가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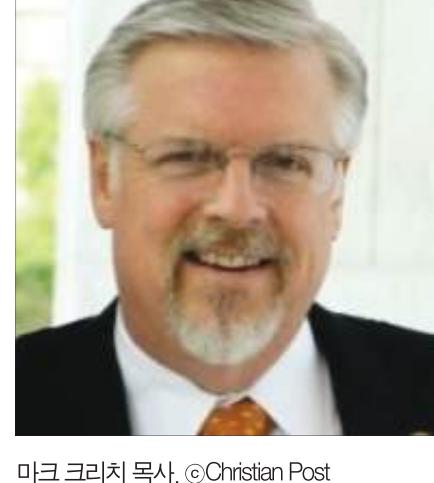
마약과의 전쟁이 언젠가 성공하려면, 그 초점은 범죄 공급자에만 머물지 않고 이 시장을 유지시키는 ‘상처 입은 사용자들’로 이동해야 한다. 수요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그 책임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마약 사용은 사회적 붕괴에서 비롯된다. 가정의 해체, 고립, 또래 암박, 경제적 절망, 마약을 미화하는 미디어, 약화된 사회 제도, 그리고 무언보다 목적과 희망을 상실한 영적 공허가 그것이다.

희망과 목적,

## 성탄절의 조용한 거인, 요셉이 들려주는 일곱 가지 신앙의 진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마크 크리치 목사의 기고글인 '성탄절의 조용한 거인, 성 요셉에 관한 놀라운 7가지 사실'(7 amazing facts about St. Joseph, the quiet giant of Christmas)을 11일 게재했다.

마크 H. 크리치 목사(Rev. Mark H. Creech)는 노스캐롤라이나 기독교행동연맹(Christian Action League of North Carolina, Inc.)의 사무총장이다. 그는 이직책을 맡기 전에 20년 동안 목회자로 사역했으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다섯 곳의 남침례교회와 뉴욕주 북부에서 한 곳의 독립침례교회를 섬겼다. 다음은 기고글 요약문.



마크 크리치 목사. ©Christian Post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리아를 떠올린다. 천사들의 노래를 부르고, 목자들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따라간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의 배경,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너무도 묵묵하고 신실하여, 그의 존재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결코 지금의 모습으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요셉은 거의 모든 성탄절 무대에 등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그를 실루엣처럼 취급한다. 지팡이를 든 채 구유 곁에서 있는 조연, 마리아 곁을 장식하는 부속물 정도로 여긴다.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는 요셉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는 '성탄절의 조용한 거인'이라 불릴 만하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의 말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은 인격과 신실함으로 크게 울려 퍼진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전진하도록 조용히 헌신한 의로운 사람이었다. 어떤 이들은 웅변이나 위대한 업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요셉은 단순하고 충실했던 순종으로 세상을 움직였다. 단 몇 절에 불과한 그의 삶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맡기실 만큼 신뢰하신 한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

요셉은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일곱 가지 강력한 진리가 또렷하게 떠오른다.

### 1. 의로움은 긍휼과 분리될 수 없다

성경이 처음으로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조용한 도덕적 아름다움이다. 마태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마태복음 1:19)라고 기록한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렬된 사람, 정의와 정직, 도덕적 윤리를 지닌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요셉의 의로움은 경직되거나 율법주의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긍휼을 넣았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님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마태복음 1:19) 하였다. 아직 마리아의 무죄함과 그 태종의 기적을 알기 전이었음에도, 요셉은 공개적인 수치의 길을 거부했다. 깊이 상처받았다고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정죄 대신 자비를 선택했다.

이는 마음이 차가운 채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의 의로움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의로움이다. 요셉의 의로움은 보호하고 살리는 의로움이었다. 그는 혜롯의 악한 살해 계획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지키기 전에, 먼저 마리아를 수치에서 지켜냈다. 이를 통해 그는 오늘날 거의 잊혀진 진리를 가르쳐 준다. 참된 의로움은 치별을 서두르지 않으며,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다. 거룩함과 긍휼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동행한다.

### 2.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인도하신다

요셉의 삶에서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특

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의 즉각적인 반응이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세 차례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신다. 예수의 입태가 성령으로 말미암았음을 알리시고, 혜롯의 분노를 경고하시며, 애굽에서 돌아올 시점을 지시하신다(마태복음 1:20; 2:13; 2:19). 그때마다 요셉은 자체 없이 순종한다. 그는 듣고, 자신을 낚주며, 그대로 따른다. 이러한 반응성은 겸손에서 비롯된다. 미가 선지자는 "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한다(미가 6:8). 예수께서도 "십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태복음 5:3)라고 선언하신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는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교만은 하나님을 삶의 계산에서 배제한다. 요셉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 그는 가르침을 받을 만큼 겸손했고, 들을 만큼 조용했다.

**3. 순종은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오는 문**  
요셉의 삶은 순종이 하나님의 목적이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임을 보여준다. 천사가 성령으로 입태된 아이 때문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따지거나 이해될 때까지 미루지 않았다. 그는 순종했다(마태복음 1:24).

그의 삶 전체가 이 패턴을 따른다. 혜롯이 아이를 죽이려 한다는 경고를 받았을 때, 그는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마태복음 2:14) 즉시 피신했다. 혜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마태복음 2:21). 그의 순종은 언제나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이 대개 순종 이후에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자신에게 부담이 될 때 물러선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밤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갔다. 준비된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펼치신다.

**4. 한 사람의 의로움이 많은 이를 위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다**

의로움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보호하고 복 주신다. 요셉의 삶이 그러하다. 그의 의로움은 마리아와 그리스도 아기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패였다. 요셉의 의로움은 실제적인 보호로 나타났다. 애굽으로 피하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고, 다시 돌아오는 지시에도 그대로 따랐다(마태복음 2:13-21). 그의 신실함을 통해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보존되었고, 예언은 성취되었으며, 오늘날 수많은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복음은 역사 속으로 안전하게 이어졌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이처럼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5.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요셉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그의 말이 단 한 마디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복음서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말할 뿐, 무엇을 말했는지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소극성의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삶으로 말하는 사람의 침묵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즉시 행동으로 응답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사야 6:8)이라는 고백을 반복해서 외치는 듯하다. 소음과 정보로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요셉은 단순함과 꾸준함, 조용한 헌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웅변이었다.

**6.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의 눈에 위대함이다**

요셉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설교를 하지도 않았고, 군중 앞에 서지도 않았다. 성경의 큰 서사 속에서 그의 역할은 작아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목수에게 맡기셨다. 요셉은 예수에게 일과 예배, 기도, 일상의 경건함을 가르쳤다.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누가복음 2:40, 52) 성장하신 그 배경에는 요셉의 흔들림 없는 삶이 있었다. 요셉의 위대함은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의 충실히에 있었다.

최승연 기자

###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침이기도회(미지역주) 오후 8:30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20(화-금) 오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고태형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7:45  
2부 예배 오후 9:10  
3부 예배 오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후 6:00(토) 오후 6:30

###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장수영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7:30AM -1부 9:00AM -평일(월-금) 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 예배 06:00AM  
-3부 11:00AM

김정성 담임목사



###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 396-4441 www.gimc.org

강문수 담임목사



주일 예배(KM) 오후 10:30 중고등부(Youth) 오후 10:30  
주일 예배(EM) 오후 10:30 대학령년부(College) 오후 10:30  
위성부(K-2) 오후 10:30 중보기도(Intercessory prayer) 오후 9:40  
초등부(3-5) 오후 10:30

### 주님 CHURCH

주일 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 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 LA 북부 지역,拉斯ベ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후 6:00

###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내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학여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후 6:00

###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com

손창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후 8:30 EM예배(1부) 오후 9:00 EM예배(2부) 오후 11:00  
금요노트북 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후 6:00(화-토)

###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예배 2부 오후 12:30 새벽예배 주일 오후 6:00(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 219-5434 www.sammool.org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 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주일 오후 7:00 새벽 7:00

###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onnuribk.com/anc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예배 오후 5:30

###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후 9:45 새벽예배 오후 11:30 주일 예배 오후 1:3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1:00  
주일 예배 3부 오후 11:30 수요예배 오후 7:45  
중고등부 주일 오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www.fglvchurch.com/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 예배 1부 오후 11:30 AM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 예배 2부 오후 1:30 PM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www.joonganglv.org

임명진 담임목사



크리스천 비지니스

# CHRISTIAN BUSINESS

##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D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 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체중 제한 \$70

최소프트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천서이 한 가득 ~~  
고기, 김치만두 침밥 호박덕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PLUMBING** FOP SERVICE, INC.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 LA여성선교합창단, 갤러리아서 깜짝 공연

12월 12일, 12시에 LA 갤러리아 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다. 연말을 맞이하여 LA여성선교합창단의 Flash mop 선물로 우울했던 12월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연주한 것. 이날 합창단은 7-8곡의 크리스마스 캐롤로 성탄의 기쁨을 전했다.

LA여성선교합창단은 외롭고 소외된 곳을 찾아가 찬양으로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합창단으로 전현미 지휘자의



LA여성선교합창단이 LA 갤러리아몰에서 플래시 몹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다. 인도 아래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동양선교교회 비전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연락처: 213-820-2888 / 213) 703-2568

## ANC 인싱크대학, 태국 반타와이 선교보고

ANC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 소속 평생교육 및 지역사회 전도 단체인 '인싱크 대학(학장 이진형 목사)' 선교팀이 태국 반타와이 교회를 방문해 성탄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인싱크 팀은 "작년에 비해 반타와이 교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분명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며 "특별히 이번 성탄 주일예배를 통해 복음의 본질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자 100여 명 가운데 95% 이상이 영접기도에 동참했고 우울증을 앓던 청년, 150km가 넘는 먼 곳에서 온 불교 신자 부부, 70세 불교도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전했다.

예배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과 이웃들을 초청한 성탄 축제가 열렸다. 선교팀은 참석한 모든 이에게 정성껏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사역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시니어 성도들의 적극적인 복

음 증거가 꼽혔다.

인싱크 팀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시니어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기독교 인구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태국에서 이들의 변화와 헌신을 통해 내년에는 2%, 이후에는 4%로 배가되는 부흥이 일어나

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교팀은 왓산동 초등학교에서 열린 VBS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이번 VBS는 약 70명의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 복음 팔찌 나눔, 게임 등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싱크대학 학장인 이진형 목사와 태국 반타와이 지역 아이들 ©인싱크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경찰국 방문해 사랑 나눠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남성수 목사)가 지난 12월 6일(금) 웨스트민스터 경찰국에 방문하여 경관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했다.

매년 연말이면 이 교회는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통해 지역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행사를 해오고 있다.

한편, 21일(주일) 오후 6시 본당에서, 2025년 영훈의 초대'네 번째, 성탄으로의 초대(전교인 성탄 축하의 밤)를 개최한다.



연극, 찬양, 연주, 영상, 위십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전기세 50~90% 절감\*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고락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olarsolardesign.com](http://www.btsolar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택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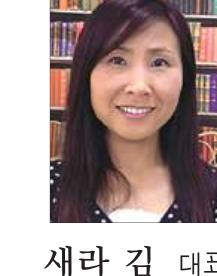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새라 김 칼럼



새라 김 대표

TVNEXT.org

몇 년 전부터 넷플릭스는 여전히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는 심대 미만의 어린이들에게까지 LGBT 동성애 관련 콘텐츠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비판이나 구독 취소를 넘어, 이제는 보이콧(boycott·불매) 운동에 나서는 개인과 단체들까지 늘어날 만큼 넷플릭스의 어린이 대상 콘텐츠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겉으로는 귀엽고, 깜찍하며, 사랑스럽고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학부모와 교회 교사, 교육자들이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학부모들과 교회에 분별력과 용기,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들의 고귀한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여성 단체인 'Concerned Women for America(CWA)'의 최근 보고서는 넷플릭스라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의도가 얼마나 깊이,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CWA의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아동·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등급을 받은 넷플릭스 시리즈 326편을 대상으로 LG-BTQ+ 주제, 동성애 등장인물, 트랜스젠더 스토리라인 및 관련 언급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리포트는 넷플릭스 시리즈 중 TV-G, TV-Y, TV-Y7 등 어린이 시청자 등급으로 분류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동성애 관련 주제와 스토리라인의 표현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했다고 설명합니다.

1. 명시적 표현(Explici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비이분법적 성별 정체성(LGBTQAI+)으로 명확히 규정된 캐릭터
2. 암시적 표현(Implicit): 이른바 '퀘어 코딩(Queer Coding)' 이 된 캐릭터
3. 메타적 표현(Meta): 게이 가족이나 리얼리

## 티 프로그램 참가자 등 간접적 노출

4. 없음(None): 동성애 관련 요소 전혀 없음  
보고서에 담긴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어린 아동들도 시청하는 TV-G 등급 시리즈의 41%, TV-Y7 등급 시리즈의 41%에 LGBTQ+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TV-Y7 등급 콘텐츠 중 24%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을 포함해 '명시적(Explicit)' 등급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는 100% 아동 적합(age-appropriate) 등급이라고 홍보한 TV-G, TV-Y, TV-Y7 콘텐츠 가운데 약 3분의 1(33%)이 LGBT 캐릭터, 주제 또는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의 리메이크 과정에서 LGBT 의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넷플릭스가 리메이크를 통해 LGBTQ+ 동성애·트랜스젠더 의제를 추진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1. 트랜스젠더 캐릭터와 레즈비언 커플을 도입한 「매직 스쿨 버스」 리부트
2.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캐릭터를 추가해 재해석한 「스트로베리 쇼트케이크」 시리즈
3. 「파워 레인저」, 「The Fairly OddParents」 등 다른 프랜차이즈의 업데이트 버전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이루어짐

4. 동성애적 주제를 포함시킨 「빨간 머리 앤」 각색작, 제목을 「앤 위드 에이(Anne with an E)」로 변경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넷플릭스가 내세우는 "연령에 적합한(age-appropriate), 가족 친화적, 교육적인 콘텐츠"라는 홍보 문구와는 현격히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디즈니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의 총괄 프로듀서가 「마이 리틀 포니(My Little Pony)」에 동성 커플을 삽입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축하하며,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자랑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넷플릭스는 USC 애넌버그 스쿨이 주도한 'Inclusion Initiative(포용성 이니셔티브)'와 협력했으며, 그 결과 신규 아동 등급 프로그램의 60% 이상에 LGBT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내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가 반기독교적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기준, 넷플릭스에서 LGBTQ+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어린이 프로그램은 9편에 불과했으며, 반대로 LGBTQ+ 콘텐츠가 포함된 프로그램은 14편에 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늘바라기

## 성탄 1 - 김은주

슬픈 성탄인줄 알았더니  
외로운 성탄인줄 알았더니  
초라한 성탄인줄 알았더니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님이 물으시니

슬픔이 사라지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초라함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성탄이다

주님과 단둘이  
소망이 넘친다...



## 내 생애 최초의 연극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처음 추위에 떨듯이 대사를 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침 제 이름의 뜻이 '한국의 요셉'인자라(물론 제 이름의 요셉은 구약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이 땅의 아버지'(earthly father) 요셉의 역할을 쉽게 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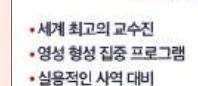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꼭 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임태된 생명을 지킬 뿐 아니라, 아이를 뱉임신한 여자를 지켜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자기의 씨가 아닌 아기를 임신한 여자가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관계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유대인의 법에 따라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이혼을 할 뿐 아니라 치욕적인 불명예를 입혀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셉 선택은 참으로 중요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마 1:19). 피해 의식 속에 반응한 것이 아니

라, 한 여인의 생명과 그녀의 미래를 생각하고 스캔들을 만들지 않기로 결심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요셉 선택에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에 세상이 만들어낸 수많은 조연들이 많습니다. 산타클로스를 위시해 서 루돌프 사슴, 선물 담는 양말, 징글벨, 반짝거리는 백화점 장식 등...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짜 조연이 있다면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응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인물, 요셉이 아니었다면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뚫고 들어오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의도적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뜻의 이름, 예수... 그 이름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짓도록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순종한 요셉은 잊혀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잊혀진 요셉과 같은 은혜의 손길이 없었는지 잠시 뒤돌아보며,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것 같은 신선한 크리스마스 무대를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202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신입생 모집

##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카카오톡 채널: "탈북" 검색

영상 형성 집중 프로그램

유튜브: "탈북신학교" 검색

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I-20) 발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BCA), 목회학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Midwestern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amp;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목회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교육목회학석사

5001 North Oak Traficea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퍸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주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학술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o.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성경사역학석학박사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amp;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목회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교육목회학석사

5001 North Oak Traficeaway, Kansas City, MO 64118

Email: ks@mbts.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amp; 신학석사 (M.T.S)

성립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성경학, 음악학, 강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학,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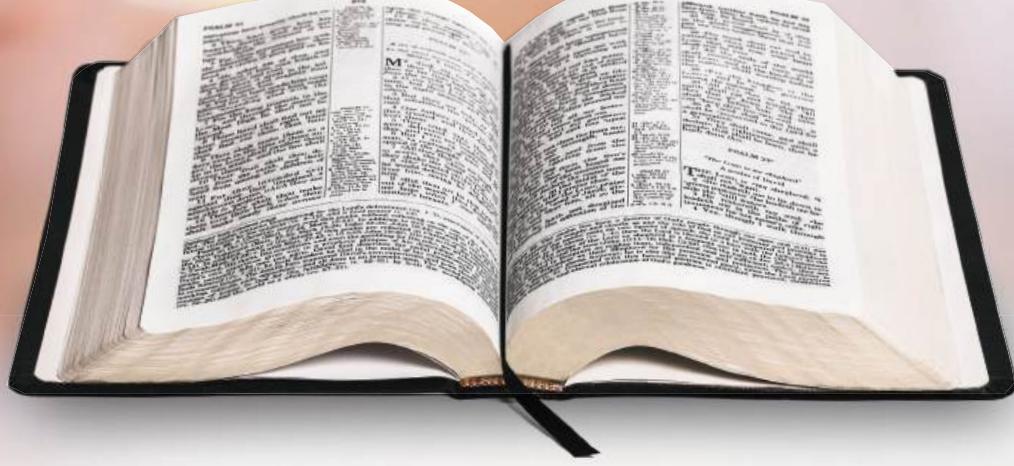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 M.Div, M.A, D.Min

• M.Div 목회학박사

# 제3기 성경필사 장학생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 앞에 서도록 돋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미주 기독일보는 올해도 신약성경 6권 필사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며 그들의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돋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 총 34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어 말씀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장학생 한 명을 세우는 것은 한 인생을 세우는 일입니다.

★ 말씀을 붙잡은 다음 세대는 교회를, 가정을, 이 땅의 미래를 일으킵니다.

이 귀한 34명의 장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이들에게 전달될 장학금 후원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다음 세대에게는 한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써 내려가는 말씀 한 줄 한 줄이 장차 이들을 세우는 능력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귀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불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장학금 1인당 \$1,000

문의 : 기독일보 213-434-1170

이메일 : chdailyreporter@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일보



주최 : 기독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서성록, 한 점의 그림] 히에로니무스 보쉬, 인간의 욕망과 구원

## 드론처럼 ‘하나님의 시선’에서 담아낸 인간의 죄와 구원

괴물과 키메라의 발명가 보쉬  
인간 죄와 부도덕 많이 그려내  
상상력 풍부한 이미지 담아내  
브뢰헬·피카소, 초현실주의로

흔히 히에로니무스 보쉬(Hieronymus Bosch, 1450?-1516)를 가리켜 ‘괴물과 키메라의 발명가’로 부른다. 그의 작품이 그로테스크하거나 불편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술사가 카렐 반 만데르(Karel van Mander) 역시 “불가사 의하고 기이한 판타지이며 … 유쾌하기보다는 섬뜩하다”고 기술했다.

인간의 죄와 부도덕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는 보쉬만의 풍부한 상상을 보태면서, 차츰 그의 개성으로 자리를 잡아갔다. 그는 평생 그렇게 다작을 하지는 않았으나 유존하는 작품 중에는 우리가 알 만한 명화가 제법 많은 편이다. 여기서는 그의 면모를 잘 엿볼 수 있는 두 점을 선별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죽음과 구두쇠〉(The Seven Deadly Sins and the Four Last Things, 1500년 경, 이하 칠죄종)은 중앙의 동심원 주위에 네 가지 다른 도상을 걸들 인 구도로 돼 있다. 중앙 동심원에는 인간의 중대한 죄, 즉 분노(Ira), 질투(Invidia), 탐욕(Avaricia), 탐식(Gula), 나태(Accidia), 정욕(Luxuria), 자만심(Superbia) 등이 위치해 있고, 주위 네 원에는 ‘죄인의 죽음, 심판, 지옥, 영광’이 각각 그려져 있다. 동심원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다. 부활한 영광의 그리스도 주위에는 광채가 빛나고 있지만, 이것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 원형 안의 작은 원이 마치 사람의 눈처럼 보인다.

보쉬는 예수상 밑에 ‘Cave Cave Deus Videt’이라는 라틴어를 적어 놓았는데, 그것은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뜻이다. 또 화면 상하에 있는 띠에는 하나님을 저버린 인간들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적혀 있다.

위쪽 띠에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며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신 32:28-29)”는 구절, 아래쪽 띠에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20절)”는 구절이 쓰여 있다. 인용한 두 구절로 미뤄

이 그림은 인류 종말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보쉬의 생각은 원판 안의 일곱 이미지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그림 하단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첫째 장면 분노(Ira)는 무기를 든 두 농부가 여관 앞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동안 한 여성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를 막으려 하고, 왼쪽의 남성은 이미 의자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다.

두 번째 질투(Invidia)는 집안 왼쪽에 있는 여성은 이미 결혼한 상태지만, 옆에 있는 남성은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장미를 선물하려 한다.

세 번째 탐욕(Avaricia)은 공정해야 할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한편 벤치에 앉아 있는 두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토론을 하며 의견을 나눈다.

네 번째 탐식(Gluttony)에서 한 남자는 게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고, 다른 한 남자는 폭음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 나태(Accidia)에서는 자신의 일을 내팽개친 채 잠을 잔다. 수녀가 그를 깨우려 하나 남성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정욕(Luxuria)은 호화로운 텐트 안팎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몇 쌍의 커플 주위로 이들의 행태를 풍자하는 어릿광대가 목동에게 영덩이를 두들겨 맞는 장면을 위트 있게 배치하였다.

일곱 번째 자만심(Superbia)은 화려한 보닛을 쓴 여인이 자신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장면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 거울을 들고 있는 사탄은 사특한 웃음을 지으며 여인을 유혹한다. 그녀의 방은 금, 은, 도자기와 같은 호화스런 물건들로 가득 차 있다.

미술사학자 월터 S. 기브슨(Walter Gibson)에 의하면 보쉬의 원형 구성은 14세기 영국 프레스코 벽화에서도 볼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 세상에 만연한 죄를 언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아마 보쉬는 당시 부패한 사회상을 질타함과 동시에, 매사에 자기를 돌아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원형 구성, 곧 ‘창조주의 눈’을 연상시키는 구성이 적합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중세 말 문학에서 강조된 ‘하나님의 시선’은 일부 플랑드르 화가들에게 공감을 받았다. 특히 니콜라스 폰 쿠사(Nicholas of Cusa)의



▲ 히에로니무스 보쉬, 죽음과 구두쇠, 1500년경.

『하나님의 비전(De Visione Dei, 1453)』에는 “하나님이시여, 오, 당신의 눈길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 나 공정하시고 고결하신지요. 구세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버리는 만인은 그 얼마나 두려울지요”라는 표현이 나온다.

니콜라스 쿠사는 “만물은 하나님 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 누구도 그 분의 눈길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마 보쉬는 이 문헌을 읽으며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보쉬는 인간의 삶을 동시대 기독교 관점에서 관찰하였다. 〈죽음과 구두쇠〉(Death and the Miser, 1500년경)가 그런 작품 중 하나다. 〈죽음과 구두쇠〉는 15세기 널리 보급된 핸드북 『죽음의 기술(Ars moriendi)』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이 책은 임종을 앞둔 사람이 죄의 허물을 벗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죽음과 구두쇠〉는 한 구두쇠가 침상에 누워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장면을 표현한다. 그림 전면 고급스러운 의상과 화려한 장신구들(투구와 창, 검), 그리고 보화가 가득한 궤짝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주인공은 평생에 걸쳐 많은 재물을 모은 것 같다. 침상 밭꿈치 쪽에 한 노인이 궤짝에 동전을 넣으려는 순간 생쥐가 이를 가로채고 있어, 보화를 쟁여둔다는 것의 무의함을 일깨워준다.

그 순간 ‘해골의 사신’이 찾아와 노인에게 화살을 쏘려 한다. 이때 천사가 노인을 부축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것을 권유한다. 작은 유리창 쪽에서 빛이 노인을 향한다. 그 빛은 자연광이 아니라 구세주의 참 빛이자 성령의 빛이다.

천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으라’로 일러 준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순간조차 놓치지 않으려 한다. 사탄은 커튼 밑에서 노인을 둔봉치로 유혹하고 있다. 천장에서도 마귀가 그 돈을 받으라고 재촉한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를 오가는 숨가쁜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묘출한 그림이 아닐 수 없다. 〈칠죄종〉이 욕망의 이끌림에 대한 경고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담고 있다면, 〈죽음과 구두쇠〉는 고민하는 노인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영생과 지옥불의 갈림길에서 노인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의 화풍은 너무 적나라하고 그로테스크해서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인간의 삶과 죽음, 타락과 구원과 같은 근본 문제를 다름으로써 단순한 감상용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주었다.

서성록 명예교수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HYUNDAI**  
**1-888-644-7114**

# “당신은 왜 살며, 무엇을 하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가 2027년 열릴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운동의 일환으로,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의 일정으로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이영훈 목사)에서 특별성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민족 복음화 비전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각 일자·회차별로 전국의 대표적 기도 운동 지도자와 현장 사역자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성회 이튿날 오전에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인 이태희 목사가 단에 올라 ‘사명’(요나 1: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소명의식의 부재”라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소명의식만 분명하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 특별성회가 진행 중이다.

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보다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명에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것”이라며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절대 동물처럼 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큰 일을 해야만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각자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

이 있다”며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2.8%의 소금 때문이다. 한

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해도 적어도 15%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회가 과연 썩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해 도망을 갔다. 결국 그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나 배에 있는 모든 짐은 바다에 던져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

명을 피하면 우리 인생도 풍랑을 만나게 된다”며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만약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렇게 크든 작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일들은 사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사람은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하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그 이름과 사명대로 살아서, 헌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회는 매일 4회(새벽·오전·오후·저녁)의 예배로 구성되며, 한국교회의 중진 목회자부터 차세대 사역자까지 폭넓게 참여해

‘기도·회개·성령 운동’을 중심으로 민족적 기도 연합을 도모한다.

주요 강사로는 이태희 목사(총재), 이영훈 목사(대표회장), 장향희 목사, 김대성 목사, 김병호 목사, 김문훈 목사, 정여균 목사, 강복렬 목사, 김원철 목사 등이다. 모든 집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이번 성회는 단순한 오산리기도원 집회를 넘어, 2027년 대성회를 향한 전국적 영적 플랫폼 구축의 의미를 가진다”고 전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2027년 까지 △전국 8천만 민족의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 확산 △코로나로 문 닫은 1만 교회 회복운동 △불신자 100만인 전도라는 3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산리기도원 성회는 이 같은 흐름 속에서 2027 민족복음화대성회 준비의 첫 대규모 연합성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한기총, 분열·갈등의 시대 속 나라 비추는 등불 되길”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2025 한국교회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축하메시지와 시상식, 만찬과 감사 순서로 진행되었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 개회예배는 공동회장 강기원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으며, 명예회장 박승주 목사의 대표기도와 명예회장 박홍자 장로의 성경봉독이 이어졌다. 이후 군포제일교회 시온중창단이 특별찬양을 했고,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설교를 전한 뒤 특별기도 순서가 진행됐다.

환영사에서 고경환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최초의 연합기관으로 세워진 이후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보호해 온 역사

와 사명을 강조했다. 고 목사는 “한기총은 60여 회원교단과 21개 회원단체, 2만4천여 교회가 함께하며 설립 정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며 “56년의 역사는 한기총의 저력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도 한국교회를 위해 각 교단과 단체가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셨고, 다음세대를 독려하며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25년을 결산하고 2026년을 준비하며, 모든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바르게 이끄는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설교에서 고경환 목사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본문으로 ‘일개 나부랭이-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고 목사는 ‘나부랭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며, 베드로가 예수님 앞

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했던 장면을 언급했다. 그는 “주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것이 없고, 사명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며 “사역의 자리에서도 늘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한기총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도 늘 나부랭이의 마음으로 회원들을 섬기겠다”며 “회원들이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는 한기총을 만들어 가는 것이 꿈이며, 이 꿈을 함께 이루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공동회장 임호성 목사가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위해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가 한국교회와 한기총을 위해 ▲공동회장 서기원 목사가 다음세대의 신앙 회복을 위해 ▲공동회장 조윤희 목사가 세계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예배는 증경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어진 2부 축하메시지 순서는 공동회장 박종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영상 시청과 공동회장 함동근 목사의 내빈 소개 후 축사와 장학금 전달, 격려사가 이어졌다. 장학금 전달 순서에서는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한국교회 교단 및 단체 추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넘어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며,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라와 국민의 삶이 안정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기총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한국 선교 140주년을 언급하며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건학 이념에 맞게 다음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성탄의 계절에 한기총 한국교회의 밤 행사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한기총이 나라를 비추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 하길 기원했다.

17개 광역시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는 “2025년은 고경환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한기총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난 해였다”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혜재단 이사장 유관재 목사는 “한기총이 과거의 잘못된 잔재를 벗고 한국교회에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며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장지동 기자



한기총 2025 한국교회의 밤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지동 기자

**CUCKOO** [www.Cuckoorental.com](http://www.Cuckoorental.com)  
213-663-9899

▪믿을 수 있는 품질, 확실한 서비스!  
▪당신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쿠쿠와 함께하는 스마트 라이프!

쿠쿠밥솥, 정수기, 공기청정기렌탈, 구매, AVS상담(한영)

750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시온마켓 1층)

**문선영의 머니토크**

### 자산 13만불 넘어도 메디칼 받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 선생님, 저는 롱비치에 살고 있는데요 67세입니다. 요즘 저소득 혜택 프로그램 메디칼 때문에 고민이 아주 큩니다. 저는 간경화에 당뇨가 심해서 먹는 약도 많고, 언제 죽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디칼이 저에게는 점 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달에 메디칼 없으면 약값만 해도 6천불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넘나드는 점은 없어도 메디칼은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재산에 상관 없이 그냥 인컴이 저소득이면 되어서 지난 2년동안 저소득 메디칼을 받았는데 내년부터 재산이 많으면 안된다고 뉴스가 나왔잖습니까. 제가 소득은 적은데 은행에 돈이 좀 있습니다. 소셜 연금으로는 한달에 1158불이 나오지만 솔직히 그 돈으로 사는게 불가능합니다. 주식이 5만불 정도 있고, 은행에 돈 있어도 된다고 해서 집을 2년 전에 팔아서 집 판 돈으로 작은 집을 사서 이사한 후에 남은 돈이 22만불 정도가 은행에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씩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은행에 있는 돈 22만불 가지고 약값이나 입원비로 쓰면 되지 뭘 그렇게 메디칼을 받을려고 노력하나라고 유효할지 모르지만, 메디칼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요즘 신문에 보니까 이 돈을 어뉴이티에 넣으면 메디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뉴이티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문선영 선생님 꼭 좀 도와주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돋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재정플랜을 돋고 있

했지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건 소득이 저소득 기준에만 들어가면 모두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이제 자산은행에 예금이라던지, 주식 보유액, 주택, 차량 등을 심사에 참고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혼자서 세금 보고를 하시는 싱글이시라면 재산이 13만달러를 넘으면 안되고요,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경우 재산이 19만 5천달러를 넘으면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 도입되었던 자산규모나 체류신분에 상관 없이 소득만으로 메디칼 혜택이 주어졌던 것이 자산 규모의 제한이 다시 시행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께요. 메디칼을 신청하는데 내가 가진 돈 전체가 자산으로 다 들어가

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현재 집을 팔고 다시 구입하신 거주 택 1채는 자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선생님이 타는 차량 1대도 자산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뉴이티나 생명보험에 들어가 있는 자산도 제외가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은행에 일단 22만불을 가지고 계시고요, 주식에 있는 돈 5만불이 뭐 더 자라거나 떨어지거나 하겠지만 일단 5만불로 계산하면 이것도 자산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총 자산은 27만불이 됩니다. 선생님이 1인 가구일 때 13만불의 자산 기준에서 14만 5천달러를 초과가 되는데 이것도 주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때 이야기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은행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안되고, 하지만 소셜 1158불로는 살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생활비가 더 필요하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 은행에 있는 돈 22만불 중에 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니, 4%, 서 7만불은 남기고, 15만불을 만 5%씩 꺼내 쓰신다고 해도 원금은 물론이고 돈은 조금씩 더 자라게 될 것 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은행에 있는 돈 5만불이 넣으면 첫째는 어뉴이티에 넣으시면 첫째는 물론이고 돈은 조금씩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5만불은 어뉴이티에서 넣으시면 저마다 넣어서 4%씩 꺼내 쓰시면 저마다 넣어서 4% 혹은 5%씩 꺼내 쓰시고 1년에 6천불, 그래서 한달에 5백불이 되어서 선생님의 소득은 천 소득의 자산 한도액도 해결하고, 6백 5십 8불 (\$1658)이 되어서 월 저소득 1,800불 소득 보다 낮아서 저에게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어뉴이티 플랜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주시면 어떻게 어뉴이티를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어뉴이티에서는 평균 7~8% 이 다. 이제까지 문선영이었습니다.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626-827-9599**

3435 Wilshire Blvd., 14FL A04, Los Angeles, CA 90010

6 Centerpointe Dr., Suite 737, La Palma, CA 90623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Merry Christmas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or to us,  
a child is born.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충현선교교회  
홈페이지



충현선교교회  
YouTube

### 충현선교교회 연말연시 예배 안내

#### 예배안내

12월 25일 (목) 11:00AM Christmas Family Worship

12월 31일 (수) 11:00PM 송구영신예배

1월 5-10일 (월-토) 5:20AM 특별새벽기도회 (헤브론 경건훈련)



담임목사

국윤권

Rev. Kenny Kook



강사

백운영 선교사

GP선교회 국제대표(말레이시아)

### 충현선교교회 2026 신년 부흥 집회 1월 9일(금) - 11일(주일)

#### 집회일정

1월 9일 (금) 7:30PM '아들이란 명분(Adopted into a son)' (갈 4:4-7)

1월 10일 (토) 5:20AM '다리놓는 사람들(Bridge Builders)' (골 1:5-6)

1월 10일 (토) 7:00PM '교회로 말미암아(Through the Church)' (엡 3:8-13)

1월 11일 (주일) 1,2,3부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Church that sounds good faith in God)' (살전 1:4-8)  
2:00PM '여호와의 등(Back shadow of God)' (출 33:16-23)

### 충현선교교회

CHOONG HYUN MISSION CHURCH

담임목사 국윤권 Rev. Kenny Kook 문의: 818-549-9191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www.choonghyun.org

### 나성영락교회 예배시간

Worship Schedule

주일예배 1부 오전 7시 30분  
2부 오전 9시  
3부 오전 11시  
청년 오후 1시 30분

특수부 예배 오전 11시

E.M(영어예배) 1st 9:00AM  
2nd 11:00AM

주중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30분  
온교우 토요기도회 (토) 오전 6시

능력의 수요 강해 (수) 오전 10시

교육부 예배 오전 11시

• 신생아부 · 영아부 · 유아부 · 유년부 ·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 대학부

YN한국학교 (주일) 오후 1시  
(토) 오후 9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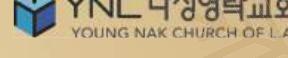
AWANA (주일) 오후 2시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기쁘다  
그주9셨네



담임목사 박은성

Rev. Dr. Eunsung Park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 AKUS 한미연합회 LA

어둠 속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해 동안 걸어온 길이 쉽지 않았을지라도,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남은 연말을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복된 결말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회장: 김영구 목사



사무총장: 박세현 목사

Tel. 310-404-6219, 323-404-3147

1065 Lomita Bl. #312 Harbor City, CA 90710 sbgc6219@gmail.com